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 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4월 11일 (제109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무식하게 믿어라

많은 목회자들이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으십시오.” 이 말을 즉각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반드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으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척, 아는 척 한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따지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바울이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아니요’가 아닌 ‘예’만 했기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 것이다.

어느 회장이 박사에게 항아리를 주면서 깨트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박사는 자기 지식에 발동을 건다. ‘이걸 왜 깨트리라고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깨면 좋을까?’ 이러느라 못 깨트린다. 그러자 그 회장은 직원에게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바로 깨트렸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

가장 큰 그릇은 빈 그릇이다.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 자리가 생긴다. 성경에는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10:4~5).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면 얹고 귀신을 쫓으려면 쫓아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난주간 수요일예배와 부활주일예배 공히 지난 2016년 및 2017년 예배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갖는 영적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에 이것이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 부모세대는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경험하며 정말 험난한 시절을 이겨내 온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며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행상도, 날뎌팔이도, 그 어떠한 어려운 일도 마다않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농사의 기본인 소까지 팔아서 대학을 보내는 등 자녀

이르면서 까지도 그분들이 바란 것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요, 해방된 조국에서 번영을 누리는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선열들의 그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지극히 가난한 자로 오셔서 죄인처럼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 그를 믿는 자녀들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이끄시려는 일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

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씀들은 귓전으로 흘러버리고 세상에 속아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아가 치밀 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통탄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이란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만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에 고난주간만 되면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며 스스로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행하며 자해까지 서슴지 않는 무리들을 나는 남미 등



KBS88체육관 부활주일예배 광경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한 마디로 내 배는 골아도 내 자녀들만은 출세하여 등 떠승고 배부르게 살도록 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런 집념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오늘의 젊은 세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와 희망을 담아 키워낸 자식들이 다 땡개치고 다시 부모세대의 전철을 밟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지내온 세월인데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바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 그대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던 모든 율례를 폐하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사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까지 건너가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간과한 채 여전히 율법에 얽매어 허덕이며 죄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이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해산의 수고

제3세계 국가를 방문했을 때 보곤 하였 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받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좌절, 낙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19)



의욕이 없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은 주일 새벽부터 나와 봉사를 합니까?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고, 교외로 나가서 피로도 풀면 좋을 텐데요. 왜! 여러분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까?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모아서 좋은 집도 사면 좋을 텐데요. 왜! 여러분은 못들을 소리 들어가며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편하고 시설 좋고 욕 안 먹는 교회도 많은데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지요?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꿈이 있고, 행한 대로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더 나아가 열고을의 왕이 된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꿈과 이상이 없는 자입니다. 꿈과 이상이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이 나 일반입니다. 한 세상 본능대로 살다가 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은 곧 목표요, 목적일진대 목적지가 없는 배나 비행기가 어찌 될까요? 과녁이 없는 화살이 어찌 될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참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산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 삶은 불을 보듯 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는 자는 의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고, 삶을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지내다보니 꿈도 이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사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나가 풀어놓고는 낮 놓고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는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는 큰 목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의욕이 샘솟고, 지혜가 샘솟고, 점차 담력이 생기고, 80의 나이에도 40대 기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꿈이 생기면 이렇게 변합니다.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나 달리는 자는 꿈을 이룬다

요즘 서울과 부산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후보자들을 보세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녀도 안 지칩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가며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시장이 왜야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그녀는 "울소이다."라며 딸의 병 낫기만을 소원했던 것처럼 말

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이러면서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잃어 의욕이 없기 때문에 만사가 다 어렵고, 만사가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편한 세상이 있었나, 만만한 세상이 있었나, 만족할 만큼 풍족한 세상이 있었나 물어보세요. 다들 입을 모아 없다고 할 겁니다. 세상은 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영웅이 탄생하고, 새로운 신화를 쓰는

자가 나오는 것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끝까지 사수하

는 나 못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예전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사람은 군인들과 장사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복자와 거부의 꿈이 있었기에 죽음의 모래바람 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올해 목표는 세우셨나요? 이대론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생각이 부활해야 합니다.

1950~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그가 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소년과 흑인 소녀가 손에 손을 붙잡고 몽고메리 시가지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 묻은 조지아 주 언덕 위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에 넘치는 밤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흑인들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흑인들이 가는 식당과 백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는 비폭력투쟁으로 꿈을 일구다 1963년, 총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노예의 아들이 백악관의 주인이 됨으로써 그 꿈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꿈을 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꿈을 접었기 때문

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꿈을 심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과 같 습 니 다.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나무가 되나요? 바로 열매를 따나요? 아닙니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알면서 왜 꿈이 자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즉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꿈의 씨앗을 파버립니까? 그레놓고 꿈은 허상이라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자들, 정말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안하무인인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재판관이 지칠 때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확실했기에 과부의 의욕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재판관이 과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까? 김구 선생과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기필코 조국을 독립 시키고야 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항했고, 해외로 뛰어다니며 대한민국이 약 소민족으로서 일본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리는 등, 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했습니까? 순

탄하게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꿈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을 낫는데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가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되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도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뤄졌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33년이란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조금이 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것 이상 이룰 수 없다

저도 목회 초기에 '세계교구'라는 뜻을 써놓고는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아우르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에너지가 되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금요일아침에 주일예배를 드리고는 다시 월요일이면 보따리를 싸들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로 나가 마침내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놓지 않으니 환난도 핍박도 저를 좌절낙담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8:35)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이 얻어맞아도 달리게 했고, 헐벗고 굶어도 달리게 했으며, 욕에 갇혀도 좌절하지 않고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는 것이고, 꿈을 잃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 생각이 부활하기를, 꿈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부활하면 영·혼·육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적맞은 꿈을 되찾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코로나 위기 대응책

지난 2021년 3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 2,500억 달러(약 2,542조 5,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 내 수백만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중국을 확실하게 압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출의 주요 구성비는 교통, 식수 및 전력분야에 56%, 제조업에 25%, 그리고 사회적 노약계층 지원분야에 19%를 배정할 것이며 추가 계획도 곧 발표예정입니다. 아울러 낸시 펠로시 의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조정하고 연소득 40만 불 이상 해당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를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이전까지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조건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 그리고 무보증, 무담보 자체여신 사용원칙을 최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참여기업들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재무 및 생산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발주처인 연방 및 주정부는 계약상품의 인수, 혹은 공사의 완공 이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며 총 프로젝트 기간은 8년이지만 자금 조달 및 투입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계획한

다고 발표한 것은 어떠한 형태이던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실행예산이 필요하거나 목표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달러화 역외시장(Eurodollar market: 2016년 기준 13.6조 달러의 규모)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장애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급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국채 10년물 금리가 1.76%까지 근접했던 것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확대시킬 수 있고, 회수되지 않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될 시 그 충격은 COVID19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경제주체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신호라는 봅니다.

지난 5분기동안 고정자산 회전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및 비영리단체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었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및 구성원들의 즉각적인 편리함보다는 핵심가치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늘 강조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철학과 원칙이 계속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 세상을 보는 창 ::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한 태도 때문에 한 직장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긴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누구 앞에서라도 한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이유로 직장 상사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한 직장장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타구 라켓 대신 첫술 뒷면으로 타구를 치는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 라켓을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타구공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는 내 맘대로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꾸준한 훈련과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전했다. 범죄

후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수치심의 노예, 열등의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1:25)고 말한다. 여기서 ‘복’은 ‘유익(benefit)’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하듯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법안에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이정금 전도사

엄마 닮았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엄마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전혀 의식조차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닮는 것을 느낍니다. 외모뿐 아니라 식성도, 걸음걸이도, 성격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보니 주워온 자식은 아닌가 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과 닮은꼴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주님 닮아감을 느낍니다. 아직도 닮지 않은 구석이 더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닮아가고 있음에 스스로 안도합니다. 세월이 더 가면 좀 더 닮겠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고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신성(神聖)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부모·자식 간이라면 어디 한 구석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당연히 닮아야겠지요. 주 안에서 삶이 오래될수록 많이 닮아야겠지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주님과 닮은 곳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 자식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닮아라!’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지혜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닮아야지요. 그분의 뜻을 먹고, 그분이 주는 꼴을 먹은 세월이 길다면요. 데려와 기른 자식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닮는데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가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수중심편집실



:: 오늘의 메시지 ::

“그럴 수 있지”

수영장에 다니면서 동네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나는 30대, 다른 두 명은 20대와 40대였다. 우리는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을 쌓으며 잘 지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나에게 “너는 왜 맨날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하니?”라며 화를 냈다. 그 뒤로 우리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얼마 전, SNS에서 지인의 피드를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지인에게는 딸이 두 명인데, 첫째는 예쁘고 건강한 초등 2년생, 둘째는 느리게 크는 지적 장애 5살 아이였다. 큰딸 아이의 친구들이 집에서 놀다가 한 친구가 “너희 동생은 왜 기어 다녀? 아기 같아.”라고 말하니, 큰딸 아이가 “내 동생은 느리게 크는 아이야.”라고 대답했단다. 물어본 친구가 “왜 느리게 커?”라고 다시 묻자, 그 대화를 들던 다른 친구의 말, “그럴 수도 있지.”

그 지인은 딸보다 조금은 성숙해 보이는 그 친구의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소회를 남겼다. 그 글을 본 뒤로 내 입과 머릿속에서 꽤 오랜 시간 그 말이 맴돌았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많은 것들을 유연하게 만든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독단적이야?”, “저 사람은 왜 애를 저렇게 키워?” 등등. 누군가를 재단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든 말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렇다. 모든 일은 그릴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땅에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들의 각기 다른 생김새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다 다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안는 일은 매우 어려운 법이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우리는 저마다의 주관과 상식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보듬어 안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말은 나의 상식이 아닌 상대방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

전훈지 집사

:: 믿음의 터를 다지며 ::

:: 귀를 기울이세요 ::

겨자씨만 한 믿음이 무엇일까?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약 10년 만인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당시 적군이었던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와의 최후의 결전을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다리우스는 결전을 앞두고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하며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참깨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참깨처럼 셀 수 없이 많으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뜻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답장으로 작은 봉투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알렉산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선물은 바로 작은 겨자씨 하나였고 이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겨자씨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 전투는 역사에 길이 남는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3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바로 겨자 꽃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이 온통 노랗게 변할 만큼 놀라운 생명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어전쟁에 참전 중인 한 영국 장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벽을 뚫고 탈출했으며 남아공 내의 영국인 이주자의 도움으로 위험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립지대인 포르투갈령 모잠비크까지 무려 480km를 걸어서 탈출에 완전히 성공합니다.

이 장교는 어린 시절 말더듬이였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고 어느 정도 철이 들 무렵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집중력을 길렀고, 오랜 시간 노력하여 말더듬은 습관도 극복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말더듬이뿐만 아니라 집중력까지 약하던 그는 성적이 좋지 않아 사관학교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3번째는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문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관철한 이 사람은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또한 겨자씨의 비밀과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칠이 2차 대전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할 때였습니다. 처칠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힘 있는 목소리로 짧은 한 문장을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설이 끝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청중에게 한참 뒤 그는 소리를 높여 다시 외쳤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리둥절해하는 청중들에게 처칠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야 청중들은 처칠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고 버겁고 눈물 나고 더 버티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간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작은 하나의 겨자씨를 믿음으로 땅에 심고 인내하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원고 청탁을 받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성경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응답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시81:15)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능만 할지라도 우리의 시대를 영원히 계속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의 시대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라고 해도 박대하지 않고 품고 달래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피땀을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양식을 사고 집에 있는 자식의 입에 숟가락 들어가는 모습에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이적이 일어납니다.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수표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맘대로 육신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내 욕심을 좇아 내가 초래한 일인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도 예전의 나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며 지레 겁을 먹거나 자책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고백하며 돌이켜 회심하여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든지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고 수많은 주홍빛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일곱 번 더 갔던 엘리야처럼 겨자씨 하나를 품고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이 말씀을 붙잡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의 견고하고 축복된 미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팀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집사

사랑하는나의동역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삼상18:1).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합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삼하1:26).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우정을 엿볼 수 있다. 여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우정, 너무 부럽다.

사무엘 상·하의 ‘다윗과 요나단’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에게도 다윗 같은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나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네가 먼저 그들에게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렴.’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목사님은 급란지붕(急難之朋), 곧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붕 뚫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친구같이 힘들고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신다.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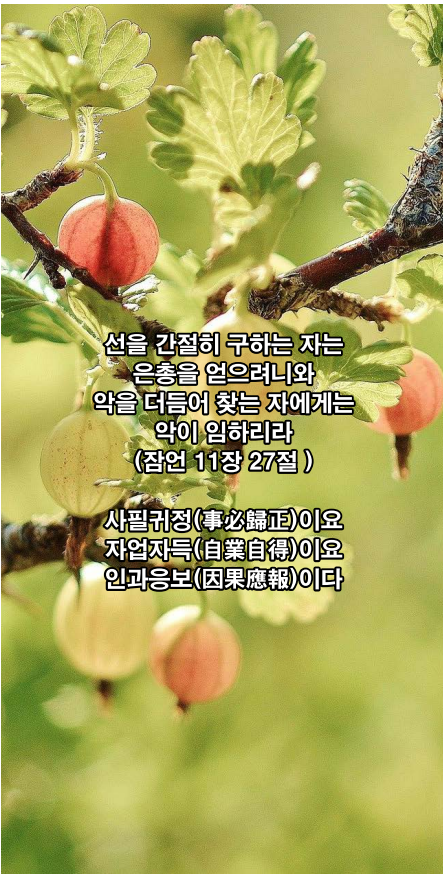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나의 천국 동역자(同役者)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그들과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어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3:9).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인과응보(因果應報)이다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